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524.3511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4. 3

**한국YWCA**

**이달의 생각**  
 핵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특집**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이달의 현장**  
 필리핀 타클로반 구호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연수보고**  
 유럽의 사회적 경제기관과 돌봄 사회적기업 탐방



올봄엔 우리 마음 밭에도 꽃씨를 뿌려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다양한 꽃들이 존재하듯 우리 마음 밭에도 사랑의 씨앗,  
 평화의 씨앗, 믿음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하듯,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기다려 줄 줄 아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식물의 씨앗은 뿌리는 시기가 따로 있지만 마음의 씨앗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씨앗들은 너무 빠른 때도 없고, 이미 늦은 때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심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 목 차



#### 표지이야기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은 매 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 명 동 한국YWCA회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52개 회원Y와 함께할 이 캠페인은 모든 시민이 '탈핵' 운동에 함께하는 그날까 지 계속됩니다.

- 04 이달의 생각 핵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 한영수
- 05 월레아침기도회 온전히 하나되게 하소서 | 최대광
-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3월의 한국YWCA | 유성희
- 특집**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 08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의 의미와 계획 | 이윤숙
  - 10 제1차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스케치
  - 12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서명
- 13 이달의 묵상 살림의 기운 | 이찬진
- 16 한일YWCA협의회 오키나와 공동성명서
- 18 후원감사 북한어린이돕기
- 칼럼**
  - 20 인권 세계인권선언 | 김정린
  - 22 여성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II | 이유명호
  - 24 탈핵 제2편 핵사고의 원인 | 김익중
  - 26 청년 경험으로 나를 만들어가다 | 이지은
- 28 이달의 현장 필리핀 타클로반 구호봉사를 다녀와서 | 윤소라 · 김용진
- 30 연수보고 유럽의 사회적 경제기관과 돌봄 사회적기업 탐방 | 구정혜
- 33 지역운동이야기 지역, 핵 없는 세상을 실천하자! | 최수산나
- 35 연합회 소식
- 37 회원YWCA 소식

# 핵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글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한국YWCA의 2014~2015년도 6대 추진과제는 탈핵, 평화통일, 대안교육과 청소년운동 활성화, 성인지, 돌봄 노동권 확보, 여성폭력예방이다. 52개 회원YWCA가 모두 모인 연합YWCA가 머리를 마주하고 결정한 과제들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중에서도 회원Y가 제1과제로 결정한 것이 탈핵이다. 탈핵활동 예산을 올려야한다는 제안과 허락이 함께 결정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지 3년이 되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였음에도 우리들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만 가고 있다. 사고가 난 일본에서조차 사고를 직접 당한 후쿠시마 인근 지역 사람들만 핵사고 후폭풍에 끝도 없이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 주민들 10만 명은 아직도 고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 사고 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차라리 나를 거라고도 말하고 있다.

방사능은 핵 발전 사고에서 수일에서 수십만 년 까지 계속해서 방출되어 모든 생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사고지역의 인구 중에서 노년<중장년<청소년<어린이<영·유아<태아의 순서로 방사능으로 인한 세포의 DNA가 손상을 받게 된다. 태아 시기의 DNA 손상은 사산이나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린이와 영·유아들은 세포분열이 왕성하므로 세포의 DNA가 받는 손상과 그 피해의 양은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일본은 현재 어린이들에 대한 처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방사능 물질은 반감기가 있어서 방사능 물질 자체의 방

사선방출량이 1/2로 줄어들거나,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방사능물질의 1/2이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나머지 절반은 10회 이상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거의 소멸된다. 방사능 물질의 종류에 따라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달라서 요오드131은 8일, 세슘137은 70일, 스트론튬90은 18년, 플루토늄239는 200년 이상 걸린다. 10회의 반감기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몸은 이들 방사성 물질에 의해 피폭될 수밖에 없다. 반감기가 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의 경우는 우리 몸이 죽은 후까지도 방사능이 배출되어야 한다.

갑상선에만 존재하고 반감기가 짧은 요오드는 방사성 동위원소 요오드131 때문에 갑상선 암을 유발하게 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갑상선 의심환자가 30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세슘으로 인한 근육계 질환은 30배 이상 발병하고 있다. 심장도 근육이므로 세슘은 고혈압 돌연사 등의 심장병과 연관하다.

이런 문제들은 옆 나라 일본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다.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전 지구상의 생물의 생존권과도 관계되는 일이다. 문명의 발달로 이룩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원시인의 삶으로 되돌릴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널리 알리기 위하여 3월 11일 화요일 점심 시간에 명동에서 불의 날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매주 화요일은 명동에서 불의 날. 핵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 온전히 하나되게 하소서

글 | 최대광 (정동제일교회 부목사)

##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됨”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에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기도는 하나되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디트리히 본헤퍼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평화를 선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난 이 평화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랐지만, 이들은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은 박해하는 적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같이 평화와 화해를 선포하다 박해 속에 순교하였지만, 이들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화해했습니다. 이들이 뿌린 씨앗은 유럽과 전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로 선포하신 그 평

화,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셨던 그 화해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 이 땅위에서 선포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랐지만, 이들은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은 박해하는 적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이 싸움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 속에 어디에서부터 이 화해와 평화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되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예수께서 당신을 희생하며 이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이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시의 교차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뜻이 교차되고 만나고 흩어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들은 이 다양성을 주시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되지 않았고, 하나되는 과정에 있고,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되는 과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년 전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속한 일터와 그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 3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3월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피어난다는 3월. Y연합회 사무실은 무척이나 많은 변화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새로 임원단이 선출되었고, 위원회가 개편되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 운동의 전문성을 담당할 중점 운동국, 지역의 운동성을 지원할 지역운동국, 법인운동을 지원할 법인사무국의 3국장과 실무팀이 구성되어 공간의 배치도 바꾸고, 업무의 인수인계도 완료했습니다.

회원YWCA도 교육 프로그램이 개강식을 비롯해서 한국YWCA 운동 정책을 현장에서 시작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3월 초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2년째 지역위원회 주관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회원증모 연합 워크숍은 연합회 주최로 대표들이 모여 진행되었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회원Y 중 주관을 원하는 회원YWCA에 모여서 Y운동에서 회원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회원증모운동의 방식과 전략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Y가 추구하는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 문제에 눈감지 않고 변화를 위해 참여한다는 자기 결단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Y의 핵심 역량입니다. 회원증모를 통해 깨어있는 여성들을 찾고, 다양한 참여방식을 통해 회원들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의 행복한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쿠시마 참사 3주기인 3월 11일, 명동에서 생명의 불기둥을 세우는 역사적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탈핵을 위한 '불의날 캠페인' 이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열립니다. 거리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노후원전 가동중지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되었습니다. 한 시간도 채 안되는 캠페인이었는데, 첫날인 3월 11일에는 92명의 시민들이, 3월 18일에는 그 두 배인 17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10,000명의 시민들의 동참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사업으로 결의한 YWCA의 탈핵운동은 그리스도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 정의운동과 평화운동을 넘어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불이 전국으로, 전세계로 이어지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회원Y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들이 전국운동을 협의하는 사무총장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청주, 제천, 천안, 광명Y의 신임 사무총장을 환영하고, 한국Y 6대 과제의 현장 적용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Y의 살림이 방대해졌고, 유사한 조직들과 경쟁적 관계도 있고, 현장 활동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전문 활동가로서 사무총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오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이유,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 어떤 운동이든 신앙 운동이 된다." 주제 강사인 장윤재 교수님의 말씀과 사순절 기도 모임을 통해 사무총장들부터 하나의 마음으로 생명의 일꾼 되기를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기운으로 바쁘게 움직인 3월. 한국YWCA는 사람을 만나고, 찾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을 모으며, 탈핵운동의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 생명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세상에 위기를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 땅을 지키고 경작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8)라고 응답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의 의미와 계획 | 이윤숙
- 제1차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스케치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서명
  - 노후 핵발전소 폐쇄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 죽음의 불을 끄고 생명의 불을 켜기 위하여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시작하며

글 | 이윤숙 (중점운동국 부장)

## 노 모어 후쿠시마! - 망각으로부터의 환기

어느새 어마어마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참사가 일어난 지 3주년이 되었다. 모든 걸 삼켜버리는 시커먼 츠나미와 어이없이 주저앉으며 폭발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 4호기, 파괴된 집들, 모든 걸 잃고 망연자실하는 사람들... 3년 전의 이 모든 충격적 영상은 이제 더 이상 빈번히 되풀이되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되풀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핵 참사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공기 중으로는 물론이요 태평양 바다로 하루 300톤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 주민들을 포함해 아직도 10만 명이상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그뿐인가? 갑상선암과 백혈병의 증가 등 어린 아이들의 내부피폭이 점차 무서운 현실로서 보고되고 있다. 바깥에서 마음껏 놀지 못하고 빈번히 코피를 쏟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후쿠시마 부모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새로운 형태로 더 심해지고 있는데도 벌써 일본의 아베 우익 정권은 핵발전이 가져온 참극과 그 고통의 기억을 지우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일본의 새로운 번영을 말하며 도쿄올림픽까지 유치하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위험하기 그지없는 노후 핵발전소를 가동

하고 유지한 책임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기 위해 일본의 번영을 선전하며 다시 또 핵발전소를 가동하려는 이들이 고안해 낸 것은 다름 아닌 고통의 기억을 지우고 '번영'이라는 의 슬로건을 내세우는 '망각의 정치'이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핵사고를 이웃나라에서 바라보았던 우리들은 어떠할까.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후쿠시마 사태의 심각성을 일상적으로 환기해주었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이며, 후쿠시마 핵발전소처럼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수명을 연장하여 부산 울산 시민 370만 이상을 반경 30km 안에 두고 가동 중이고, 최근 빈번해지는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후쿠시마 핵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둔감하다. 하지만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또다시 현실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고통스런 기억들을 드러내야 하고 말해야 하고 끄집어내어 외쳐야 한다. 나치의 학살의 피해자들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증언이야말로 '망각'의 지배를 찢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전국을 돌며 YWCA 회원들에게 후쿠시마 핵사고의 진실을 증언 하던 후쿠시마 아이즈 방사능정보센터 대표 카타오카 테루미씨는 절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후쿠시마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방사능 공포와 불안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고립과 분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3·11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 핵발전소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 죽음의 불이 아니라 희망의 불을!

후쿠시마 3주년이 되던 지난 3월 11일 화요일, 명동 연합회 앞에서 후쿠시마 주민들이 증언했던 그 '고통의 기억'과 연대하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며 이 땅에서 반드시 핵 없는 세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절실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명동성당과 마주하고 있는 연합회 건물 앞에 주황색 파라솔이 펼쳐지고 주황빛 스퀘어를 맨 YWCA 활동가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핵없는 세상을 위한 기도'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주황은 어둠으로부터 다시 떠오르는 태양의 색깔로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고, 꺼지지 않는 핵발전소의 불의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인 자연의 불, 해를 상징하기도 한다.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직장인들, 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 엄마들, 명동 일대 용무를 보던 어르신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후쿠시마 주민들의 고통에 연대하는 의미로 생명나무에 주황색 리본을 묶어주셨고,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반대를 호소하는 서명용지에 이름을 적으셨으며, 핵의 지뢰밭이라 일컬어지는 동아시아 핵발전소 상황 판 위에 핵발전소 반대 스티커를 붙여주셨다. '탈핵'이 시민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주제는 아닐까 하고 걱정했던 마음 속에서 봉긋이 주황색 희망의 해가 떠올랐다. 민의를 표현하고 주장해왔던 민주화 성지이자 오늘날 대한민국 소비중심지로서의 명동에서 YWCA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을 펼치면서 우리가 쓰는 전기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들이 우리생활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눌 계획이다. 그리하여 '핵발전소 얼마나 위험한지, 핵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하고 이해를 얻을 것이며, 또 핵 없는 세상을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할 것이다.

## 돈보다 생명! - 안락을 향한 전체주의를 넘어서

"이 나라의 높으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이것은 바로 지난 해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계 탈원전회의에서 후쿠시마의 어린 초등학생이 던진 질문이다. 온갖 물품들의 화려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를 위한 막대한 에너지가 쓰이는 이 명동 한복판에서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을 벌이면서, 다시 한 번 이 어린아이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절박하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핵발전소가 갖는 위험과 폭력을 느낀다 해도, 우리 모두가 물질주의의 안락함과 돈 중심의 편리함과 풍요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처럼 대량소비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핵발전소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다시 포박당하고 만다. 일본의 정치사상가인 후지타 쇼조는, 미래 세대의 운명에는 아랑곳없이 소득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배타적인 경쟁에 빠져서는 돈이 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선이 되고, 그 반대는 무조건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상황을 '안락을 향한 전체주의'라고 말했다.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을 통해 우리들이 핵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나팔수이자 동시에 '안락함을 위한 미망'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불을 켜는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다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가슴깊이 소망하고 기도한다. 🙏

# 제1차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글 | 편집부

지난 3월 11일 화요일 제1차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이 한국YWCA회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3주기인 이 날,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및 한영수 부회장을 비롯하여 실행위원과 활동가 총 30명 가량이 참석하여 “NO More 후쿠시마!”를 외치며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을 시작했다. ‘불(火)의날’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꺼지지 않는 재앙의 불인 핵의 위험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에너지인 태양의 밝음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타임라인	현장스케치	
11:50 - 12:00		점심식사를 위해 명동으로 나온 사람들 속에서 차경애 회장의 여는 기도문을 통해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캠페인이 시작됐다. 유성희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사고 후 주민들의 고통과 지역 공동체 붕괴에 시민들의 공감을 호소하며 우리 삶에 절박하게 필요한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외쳤다. 이어 캠페인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올해로 3주기가 되는 3.11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기도를 드렸다.
12:00 - 12:10		한영수 부회장은 노후 핵 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핵 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을 통해 우리사회가 재생 가능 대안에너지를 지향하는 사회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핵사고는 더 이상 되풀이되어선 안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웃나라만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타임라인	현장스케치	
12:10 - 12:20		무관심한 듯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희망찬 오렌지빛을 보고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에도 Y회원들은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캠페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탈핵은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을 담은 오렌지빛 파라솔로 발걸음을 옮긴 시민들은 실무자 및 자원지도자들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12:20 - 12:25		캠페인의 상징으로 중앙에 세워진 생명나무를 찾은 시민들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오렌지색 리본을 매달았다.
12:25 - 12:35		한중일 3국에서 운영 중, 건설 중, 건설계획 중인 핵 발전소를 표시한 상황판 위에는 시민들이 직접 햇님 스티커를 붙여 원전을 없애자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시민들은 한반도가 핵 밀집도 세계 1위라는 위험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다.
12:35 - 12:55		이어 야심차게 준비한 ‘핵발전소 반대,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이란 메시지를 담은 오렌지빛 스카프를 두른 공연팀은 ‘핵을 반대합니다’ 노래에 맞춰 핵 반대 공연을 펼쳤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귀여운 율동과 노래를 감상했으며 관광객들은 촬영을 해가기도 했다. 이 공연을 통해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환경, 모두에게 이롭고 평화로운 자연에너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4년~2015년 2년간 전국 52개 회원YWCA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질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은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서울 명동 한국YWCA회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며, ‘탈핵’이라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지속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생명의 문제인 핵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캠페인을 확산시켜갈 예정이다. 🙌

#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



##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해야 합니다.

핵발전소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는 30년 넘은 원전이 두 개나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만 34세로서 2008년에 수명을 10 연장했고 고리핵발전소 반경 30km 내엔 부산과 울산 시민이 375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수명 30년을 다했고 현재 수명 연장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달아 터지는 핵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5백만 시도민이 사는 아름다운 동해안은 위험한 핵단지로 변하게 됩니다. 경제적이지도 않고 위험하기 그지없으며, 영구적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1	홍길동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02)774-9702	
2				
3				
4				
5				
6				
7				
8				

# 살림의 기운

글 | 이천진 (공정감리교회 담임목사)

## 창세기 1장 1절-5절을 읽으십시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 1: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 1: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창 1:5)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 창세기 2장 7절을 읽으십시오.

(창 2:7)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 답하십시오.

0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1)

02)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엇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까? 무엇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까? (1:2)

0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생겨라" 하셨습니까? (1:3)

04)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1:4)

05) 무엇을 낮이라고 하시고, 무엇을 밤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엇이 지났습니까? (1:5)

06)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그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2:7)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창조하는 기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둠이 깊은 세계였습니다. 카오스(Chaos)의 세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제 카오스(Chaos)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우주(Cosmos)의 세계가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주를 창조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을 성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아담의 창조(Creation of Adam), 미켈란젤로(Michelangelo)

있습니다. 개역한글은 '하나님의 신',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하나님의 영', 새번역 각주는 '하나님의 바람',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기운', NIV는 'the Spirit of God', NRSV는 'a wind from God', Good news Bible은 'the power of God'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생명을 창조하는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창조한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을 창조한 에너지,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을 성서는 '하나님의 기운'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생기', 새번역은 '생명의 기운', 공동번역은 '입김', NIV는 'the breath of life'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생명을 창조하는 숨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기운은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기운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생기' 는 '생명의 숨' 입니다. '하나님의 숨' 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숨결' 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1945년,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로 두 도시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히로시마 약 16만 명, 나가사키는 약 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호의 7만, 2만을 수정합니다.) 무려 24만 명을 죽인 핵 에너지는 하나님의 숨결을 죽인 에너지입니다. 안병무는 KNCC가 제7차 WCC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신학적 준비 모임에서 '기와 성령' 이라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안병무는 강연에서 생명을 창조한 '생기' 를 '성령' 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살림의 기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운입니다.

-Q: 핵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살리는 기운입니까? 악한영으로부터 온 생명을 죽이는 기운입니까?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부근 해저에서 규모 8.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이후 쓰나미가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및 실종자 18,549명, 건물 파괴 39만 8,465대 피난민이 40만 명이 상, 단수 가구는 180만 채였습니다. 후폭풍이 더 무서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은 연이어 발생한 여진으로 인해 그 피해규모는 아직까지도 복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 주변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매뉴얼 사회라고 부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훈련하여 완벽하게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질서를 지키며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일본사회는 열차가 1분만 늦어도 사과방송을 하는 정교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스러운 신화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조선일보 2012년 3월 10일자 사설에 실린 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일대는 지옥 상황이다. 젓수들은 물 한 모금을 먹겠다고 마른 수로 구렁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방사선에 피폭한 애완동물들이 인적 공간 거리를 헤매고, 소와 돼지 사체가 곳곳에 널려 썩어가고 있다. 논과 밭에는 키만큼 자란 잡초만 우겨져 있다. 바닷가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0킬로미터 반원형 지역 628제곱킬로미터가 출입 금지 구역이다. 서울(605제곱킬로미터)보다 넓은 면적이 유령 지대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사고 원전에서 핵연료를 회수하고 시설을 해체하는 데는 30~4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한다. 도쿄 사람들은 규슈 쌀을 사다 먹고, 수도물이 겁나 생수를 사 마시고, 원전 사고 이전에 만든 통조림만 아이에게 먹인다는 주부도 많다.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복구비용을 23조엔(약 31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사능 유출은 후쿠시마 원전 일대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유령 지대로 만들었습니다. 복구를 위해 1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314조원입니다. 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살림의 기운이 아닙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 죽임의 기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

-Q: 나는 핵을 찬성하니까, 반대하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운재 목사는 '핵시대의 신학과 핵 없는 시대의 신학' 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5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 고든 카우프만(Gordon D. Kaufman)은 핵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적이며,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에 반대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핵 시대의 도래' 가 가진 문명사적 의미와 신학적 함의를 깊이 성찰했다. 핵 시대의 도래로 인류는 지구 위 모든 생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권세(power)를 갖게 됐다. 그러므로 핵 시대의 도래는 신학자들은 물론 모든 종교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의 사유와 담론에서 당연시했던 모든 전제들을 근원적으로 다시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카우프만이 <핵시대의 신학 Theology for a Nuclear Age>에서 급진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전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 (divine sovereignty)이었다. 인류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구 생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게도 새로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돌보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카우프만은 그 둘 사이에 중대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함을 보았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림의 기운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핵은 버튼 하나로 지구 생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 기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악입니다.

폰 라드(Gerhrad von Rad)는 구약성서신학의 대가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Coram Deo)은 하나님과 같이(Sicut Deus) 되려고 한다. 인간은 뱀의 유혹,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Eritis sicut Deus)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율성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타락은 도덕적 악, 인간 이하의 존재에로의 전락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인주의(Titanismus), 인간의 교만을 통해 일어났다."

(Gerhrad von Rad, 창세기, 국제성서주석, 95 / 이신건, 인간의 본질과 운명, 158)

핵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죄악입니다.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

#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YWCA의 협력'을 위한 한일YWCA협의회 오키나와 공동성명서

2014년 1월 22-25까지 우리들 한국YWCA와 일본YWCA(이하 한일YWCA)는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YWCA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제8회 한일Y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의 평화를 향해서 한국과 일본의 YWCA회원들이 풀뿌리 차원의 평화교류를 계속해온 결과이며, 이번에 오키나와에서 한일Y협의 회가 개최된 것은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확신한다.

과거, 일본은 차별구조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식민지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해 왔다. 현재 오키나와의 미군주둔에 의해 오키나와 현민에 대한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고, 역사교과서 문제와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전쟁체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한국전쟁에 의한 분단,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인권, 미군주둔 등 평화를 저해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과 일본은 현재 핵발전소의 건설, 가동, 그리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핵발전소의 수출, 점점 심각해지는 빈부의 격차 등,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고, 약자에 대한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구조는 만성적인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일본과 미

국에 의해서 오키나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핵발전소의 건설은 구조적으로 같은 것이며 약한 사람, 약한 지역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희생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한 나라와 지역을 넘어서 여러 곳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희생의 시스템 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다른 희생을 낳는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희생의 시스템' =사회구조적 폭력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였다.

비폭력을 기조로 시민들이 풀뿌리 차원의 평화운동을 계속해가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를 되살리고, 비폭력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기지와 군인에 의한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YWCA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핵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또 일본 YWCA는 "핵무기도, 핵발전소도, 우리들 생활과 공존할 수 없다. 생명을 택하는 우리들은 '핵'을 부정한다"는 입장을 선언하였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YWCA는 긴밀하게 연대하여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이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 2011년 제58회 YWCA세계대회에서 제안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Y 결의문의 실천을 위해

- ① 한국과 일본YWCA는 북한의 현상황(여성인권문제와 어린이 영양실조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 ② 한국YWCA는 북한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과 탈북난민의 한국 내 생활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일본YWCA는 탈북난민의 한국 내 생활지원을 위해 개발활동과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 ③일본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④일본의 민족학교(조선학교) 무상교육 실현에 노력한다.
- ⑤전세계를 향하여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메시지를 발신한다.

## 군사기지 철폐를 향하여

- ①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구축을 위해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의 구체화를 추진한다.
- ② 외국군대의 장기주둔에 의한 여성과 어린이 인권 침해를 없애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킨다.
- ③ 전쟁으로 이어지는 군사기지에 의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에 반대한다.
- ④ 현존하는 기지의 ②, ③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우선 불평등한 일미지위협정 및 한미지위협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 ⑤ 2015년 세계대회에서 2035년 장기비전을 세울 때 군사기지에 의한 여성폭력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 ⑥ 일본YWCA는 오키나와에 기지를 강요하는 등 차별적 구조의 해결을 위해 행동한다.

## 탈핵운동의 추진에 관해

- ① 한국Y가 준비하는 '불의 날 캠페인'을 일본Y가 연대한다.
- ② '불의 날 캠페인'의 성과를 세계YWCA에 알리고 그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
- ③ 젊은 세대와 함께 탈핵운동을 추진한다.
- ④ 공통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삶의 방식이나 시민사회의 존재방식을 다시 성찰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 ⑤ 2015년 제58회 YWCA세계대회에서 핵 없는 사회를 향한 결의를 한일YWCA가 공동으로 제안한다.

우리들 한일YWCA협의회 참가자 일동은 오키나와 땅에서 군사기지가 초래하는 여러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배웠다. 새로운 기지건설을 포기하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동아시아 평화구축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월 25일 한일Y 협의회 참가자 일동

# 북한어린이에게 희망과 사랑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발표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영양결핍 인구 비율을 근거로 전 세계 나라들을 5단계로 분류한 세계기아현황지도에서 북한은 기아4단계로 아프리카와 비슷한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북한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발육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한 번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은 회복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성장기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성장과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평생 고통을 받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1997년부터 북한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올 1월에 약 4톤의 분유가 선박을 통하여 남포 지역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빵으로 제조되어 생명의 양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분유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방북할 예정이며 방북 이후에 더욱 활발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함께 하시는 소중한 기부금은 지속해서 북한의 소아병동, 어린이집, 고아원 시설의 어린이들에게 분유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전국의 52개 회원YWCA와 개인기부, 단체, 협력 교회 등을 통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한국YWCA는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이 운동이 평화통일을 위한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과 미래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어린이돕기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 2. 1 ~ 2014. 2. 28)

월 정 액 기 부	CMS 기부 (월정액기부)	강현중, 고세영, 고은희, 곽지영, 국승훈, 김가혜, 김건세, 김기동, 김명희, 김병호,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박용옥,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송록희, 송윤경, 심명자, 신인숙,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슬비, 이윤숙, 이은영, 이주영, 이행자, 이해련, 임강숙, 임진영, 장경자,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은선, 조은영, 조은희, 진인식, 최수신나, 최우림,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송이, 홍기자, 황정아, 황홍백
	개인기부 (월개좌이체기부, 기념기부등)	김미, 최혜실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예수비전교회 초등부, 흥성행복한감리교회
	교육 및 모금	신임회장연수
	온라인 모금	다음희망해(2013년도 모금분)

- 인권 \_ 세계인권선언 | 김정린
- 여성 \_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Ⅱ | 이유명호
- 탈핵 \_ 제2편 핵사고의 원인 | 김익중
- 청년 \_ 경험으로 나를 만들어가다 | 이지은

# 인권이야기 2

글 | 김정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앞으로 두 번에 나누어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을 살펴보고요 합니다. 국제권리장전이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2개의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또는 자유권규약으로 약칭,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또는 사회권규약으로 약칭,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을 말합니다.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

제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는 이러한 인류의 참상을 반복하지 않고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국제연합(UN)이 탄생했습니다. 유엔은 평화와 안전, 발전, 그리고 인권을 축으로 하는 새 세계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담은 UN헌장을 채택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인간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를 절실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후 자유와 평화를 향한 이러한 뜨거운 열의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하고 불신이 팽배한 국제사회에서 모든 인류가 기꺼이 동의할 만한 세계인권선언을 성안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대통령 부인이었던 일리노어 루즈벨트는 당시 국제사회의 지도자들(물론 대부분이 남성)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해버린 상황에서, 놀라운 리더십과 지지치 않는 열정으로 세계인권선언 성안을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이 선언문이 세계주류사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전 세계 다양한 종교와 사상, 사회적·문화적 전통, 지역, 분야의 목소리를 끌고루 대표

할 수 있는 인물들로 팀을 꾸리고, 끊임없는 이해의 차이, 의견 충돌,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문건을 성안해내고, 모든 UN회원국들이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리노어는 사실상 남편 루즈벨트 대통령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고 오늘날 세계인권사에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많은 419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배우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 자유와 정의와 평화는 인권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은 당사국들이 가입, 비준하여 그 법적 효력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엄밀한 의미의 국제법은 아니지만, 이후 생겨난 국제인권조약들의 기반을 마련해 준 국제인권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엄중한 인권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만 전세계가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간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인권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 모든 국가가 이 선언을 교육함으로써 권리와 자유가 잘 존중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는 UN헌장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과 UN헌장을 수락한 모든 국가들은 이 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 증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총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제27조까지는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3개의 조항에서는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데 따르는 개인들의 의무를 명시하고, 권리와 의무는 항상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제1조와 제2조는 이 선언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인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에 관계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차별을 포괄적인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17조를 제외한 제1조부터 제21조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 및 시민정치활동과 연계된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이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7조를 포함하여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 사회보장을 제공받을 권리, 노동에 따른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을 향유할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통섭적 접근이 필요한 자유권과 사회권

최근까지 인권영역에서의 담론은 크게 시민정치적 권리

(자유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이라는 두 범주로 나뉘어져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 둘을 포괄하고 있는데 반해, 1950~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국제인권법을 만들면서 이 둘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각각 나뉘어 실리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마치 2개의 서로 다른 영역인양 논의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후 냉전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지요. 민주주의 원칙을 표방하던 서구사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동구권을 압박하려고 했고,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표방하던 동구권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서구사회를 압박하려고자 하여, 결국 자유권규약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사회권규약은 동구권을 중심으로 성안되고 지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유권과 사회권은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이며,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사회권을 또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자유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인식하에 최근에는 사회권과 자유권을 통섭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크고,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60여 년 전에 세계인권선언 성안에 참여한 사람들의 앞선 인식과 통찰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탄생한 2개의 국제협약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읽어 봅시다.
- 세계인권선언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나와 있는 인권의 항목들을 읽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 권리, 의무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해봅시다.
- 우리 일상에서 사회권과 자유권이 함께 등장하는 예로는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봅시다.

※ 이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II

글 | 이유명호 (이유명호 한의원 원장)

## 저혈압 환자더러 게으르다고?

저혈압이며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건 특히 여성들에게 많다. 여성들은 35년 동안 매달 월경을 하고 임신, 출산이 모두 혈액과 영양분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매달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혈부족증에 빠진다. 우리 몸속에는 5cm 길이 정도의 쇠못만큼 철분이 들어 있다. 물 100ml면 산소는 5ml가 녹아 있지만 같은 물이라도 철분이 든 핏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으니 산소의 결합능력이 40배나 높다.

남자들은 모르리라. 평생 혈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여자들을 어찌 이해하겠나.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은 '게을러 보이는' 병이다. 가장 큰 특징은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 밥해주기 어렵고 나가는 사람에게 방끗 웃어주지 못하니 남편한테는 게을러 보이기 십상이다. 기억력이 나빠져서 약속을 까먹거나 실수 연발이다. 이유 없이 만사가 귀찮고 우울해지며 의욕이 없이 나른하니 마음은 있으되 살림을 잘하기는 참말 어렵다. 게다가 남편은 아내의 내조를 받으면서 직장 다니지만 주부들도 안팎으로 일에 치여 산다. 여자들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혈압이 심하면 잠을 자도 피곤하고 깊이 잠들지 못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며 얇은 잠이나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을 설치고 깊게 폭 못 자고 나면 매사에 짜증이 늘고 안절부절못하면서 얼굴이 까칠해진다. 교감신경이 피로해져서 긴장과 신경질이 늘며 신장의 피로가 누적되며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몸이 점점 허약해진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나이 들어서 치매가 생기기 전 단계에도 두부의 혈압과 혈류가 현저하게 저하되면 세로토닌 등의 화학전달물질 등이 부족해져서 병이 생기기 쉽다. 특히 월경과 임신, 유산 등에 실혈이 많은 소음인형 여성에게 뇌의 혈압과 순환 이상이 많이 나타난다. 위장기능이 나빠서 잘 체하고 영양흡수가 나쁘고 혈액이 복부 쪽에 울혈되는 경향을 보일 때나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예민해져서 더욱 심해진다. 도대체 어느 과를 가야 할까 병원순례를 해보지만 빈혈도 아니고 검사상 정상이라는 경우가 참 많다.

혈액순환을 기차에 비유하자면 혈액은 뒤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화물칸이고 저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 맨 앞에서 이것을 끌고 다니는 기관차가 끄는 것인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기(氣)라고 하며 움직이는 원동력을 말한다. 철분이 부족하다고 녹슨 못을 빨아 먹을 수는 없으니 제2철염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된다. 뽕씨에게 줄 시금치를 여자인 올리브들이 많이 먹어야 한다. 시금치는 같은 무게의 쇠고기 등심보다 철분이 무려 14배나 많다. 다음으로 겨자잎, 순무잎, 배춧잎, 피망, 브로콜리, 버섯, 콩, 토마토, 붉은 양배추, 말린 살구순이다.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붉은 살코기와 선지, 순대 등을 먹으면 된다.

## 골다공증, 뼈속을 끈득하게 채우자

우리 몸속의 뼈는 207개. 근육이 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뼈는 무게를 늘린다. 자극을 받은 골아세포가 뼈를 생산하고 파골세포는 다듬고 속에는 콜라겐 등의 교원질로 채우고 그 위에 칼슘, 인, 나트륨, 탄산염, 마그네슘 등이 자리를 잡는다.

칼슘과 인은 가장 중요한 미네랄로 매일 1500mg이 필요하다. 몸속에 들어 있는 칼슘의 저장량은 보통 1kg, 핏속을 흐르는 칼슘의 양은 겨우 0.7g밖에 안 된다. 부족하면 신경전달도 혈액응고도 장애를 받을 것이고 과잉이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심하면 요독증이 된다.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위장관에서 칼슘을 흡수하려면 햇볕을 쬐쬐 쬐여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야 한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떨어지고 구멍이 송송 뚫려 골다공증이 생긴다. 온몸의 뼈마디, 특히 어깨뼈, 팔꿈치, 손목, 무릎, 허리 등이 쭈시거나 차고 시린 통증으로 얼굴까지 조여들며 심하면 골절의 위험이 커진다. 돈만 지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뼈 저축을 뽕뽕하게 해줘야 나이 들어도 썩썩하다. 근육과 뼈는 무게를 좀 실어줘야 잘 자란다.

이상한 일은 우유 대량 소비국인 미국도 골다공증이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제품 속의 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칼슘의 이용률이 낮은 까닭이다. 이용률은 오히려 겨자잎이나 상추, 무말랭이, 나물류가 우유보다 몇십배가 높다는 것이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액을 산성화하여 칼슘을 녹여 쓰게 만든다. 음료수나 사탕 먹는 것을 줄여서 칼슘을 아껴 쓰면 도움이 된다.


오래 전에 미국 머시재단의 암센터 부원장인 이규학 박사가 국내에 소개해준 자료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골다공증 치료의 5대 필수조건을 제시했다.

콩밥, 콩나물, 콩비지, 두유, 콩국수, 콩자반, 된장, 청국장 등 콩 음식이 발달한 아시아의 여성들이 유방암이나 자궁

### 골다공증 치료 5대 필수조건

- ①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 또는 노동을 할 것
- ② 하루 두 시간 정도 햇빛을 쬐일 것
- ③ 천연 호르몬과 칼슘, 단백질이 풍부한 대두콩과 완두콩을 매일 한 끼씩 먹을 것
- ④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같이 든 무, 깻잎, 더덕류를 먹을 것
- ⑤ 커피, 콜라, 홍차, 짠 음식 등을 삼갈 것

암 등의 호르몬 관련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가 있어서 콩이 각광을 받고 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젠이라고 불리는데 독성이 없으며 안전하다. 환경의 안면홍조를 덜어주며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크다. 암세포의 생성을 막아주며 심혈관에 달라붙는 찌꺼기 같은 혈전도 녹여준다. 콩을 원료로 한 음식 중에서 가치 영양으로, 맛으로, 냄새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청국장이다. 청국장은 혈전을 녹이는 작용이 커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므로 손발저림, 심장병, 고혈압, 중풍을 예방한다.

하루에 두유 한 컵 또는 두부 반 모, 콩나물 한 접시, 청국 몇 알 먹고 햇볕 쬐이고 운동하고 음악 듣고 훌훌 가벼이 살길 권한다. 반평생 애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집안 대소사 챙기랴 정신없이 살았으니 환경기야말로 자신과 연애에 빠질 마지막 기회이다. 

# 핵발전소의 개수와 나이가 사고 확률 결정한다

글 | 김익중 (동국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세계 원전 개수.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현재 원전 현황을 나타낸다. 한국은 현재 세계 5위의 원전 개수를 자랑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3년이 되었다. 이런 엄청난 핵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핵사고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핵사고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문제를 생각한 후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원인을 찾아냈다.

제 1 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제 2 편 \_ 핵사고의 원인

제 3 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제 4 편 \_ 그렇다면 선진국과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제 5 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제 6 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제 7 편 \_ 고준위 핵폐기물

제 8 편 \_ 경주 방폐장

제 9 편 \_ 핵재처리

제 10 편 \_ 핵발전의 대안

그 첫째는 핵발전소의 발전소의 개수이다. 과거 핵사고들을 돌아보자. 1979년의 미국 스리마일 섬의 핵발전소 사고가 가장 먼저 일어난 대형사고이다. 미국은 현재 핵발전소가 104개로 세계에서 가장 숫자가 많다. 두 번째로 발생한 핵사고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이다. 현재는 러시아와 많은 다른 나라로 나뉘어있지만 핵사고 당시의 소련이라는 연방국가로서 66개, 즉 두 번째로 핵발전소가 많았던 나라였다. 그리고 세 번째 핵사고는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핵발전소가 많은 일본에서 발생하였다. 54개의 핵발전소를 가진 일본은 58개를 가진 프랑스의 뒤를 바짝 쫓는 핵발전소 보유 4위이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31개나 되고, 한 두 개 정도만 보유한 나라들이 많지만 이들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대형 핵사고는 이른바 원자력 선진국, 원전기술 보유국, 그리고 핵발전소 수출국에 집중되어있다.

이 사실은 핵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보유하는 핵발전소의 개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곧 대형 핵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또한 앞으로는 핵사고는 확률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의 미한다.

핵발전소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고에 대한 통계를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핵발전소 한 개당 사고확률이다. 현재까지 스리마일 1개, 체르노빌 1개, 후쿠시마 4개 등 6개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 한편, 전 세계의 핵발전소 숫자는 443개이다. 그렇다면 6/443=1.35% 라는 확률이 나온다. 즉, 핵발전소 한 개당 대형사고 발생확률은 1.35%인 것이다. 100개가 넘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확률이 높을 것이고, 1개, 혹은 2개를 갖고 있는 소위 원자력 후진국들은 사고 확률이 낮을 것이다. 50개 이상을 갖고 있는 일본과 프랑스는 당연히 높을 것이고 23개를 갖고 있는 한국은 그보다 낮은 것이다.

핵발전소 한 개 당 사고확률이 1.35%이고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개수가 23개이니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에서 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약 27% 정도가 된다. 믿어지지 않는 숫자이다. 그러나 달리 계산할 방법도 없다. 현재까지의 사고발생을 고려하면 이 숫자 말고는 제시할 것이 없다. 이 숫자를 거부하려면 적어도 왜 가장 핵발전소가 많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구소련에서 두 번째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네 번째로 많은 일본에서 세 번째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내야 할 것이다. 핵사고의 두 번째 원인은 핵발전소의 나이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후쿠시마에는 10개의 원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폭발한 4기는 정확히 나이순이라는 점이다. 10개의 원전 중에서 30세 이상의 원전(1,2,3,4호기)은 모두 폭발하였다. 그러나 30세가 안된 원전들(5,6,7,8,9,10호기)은 하나도 폭발하지 않았다. 똑같은 지진과 똑같은 쓰나미를 겪었는데 나이순으로 4개만 폭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노후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노후한 기계가 고장이 잦은 이유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기계도 30년 이상 사용하는 예가 없다. 원전도 똑같은 기계일 뿐이다. 오래된 기계일수록 고장이나 사고가 잘 나는 것은 그냥 상식이다.

필자가 발견한 핵사고의 두가지 원인은 핵사고의 예방방

법도 알려준다. 원전 개수가 많을수록 사고 확률이 늘어나니 사고를 줄이려면 원전 개수를 줄이면 된다. 원전을 완전히 없애면, 즉, 탈핵을 하면 확률도 제로로 줄어든다. 한편 노후원전일수록 사고확률이 늘어나니 수명연장을 안하고 30년이 되면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사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는 사고확률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원전개수는 증가하고 있고, 30년이 넘은 원전은 수명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원전개수 23개, 현재 공사중인 원전 5개, 거기다 앞으로 십수년 내로 지을 원전을 더하면 도합 41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보다 많아져서 미국, 프랑스를 뒤이어서 세계 3위의 원전대국이 될 것이다. 이는 세계 3위의 핵사고 확률을 갖게됨을 의미한다. 또한 35세의 고리1호기에 있어서 33세의 월성1호기까지 수명연장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우리나라는 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핵사고 확률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수명 연장과 원전 확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핵사고를 일으킬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물론 원전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만일 우리나라에서 핵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27%의 확률이 현실화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만일 한국에서 핵사고가 일어나면 아마도 전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다. 땅이 좁기 때문이다. 국산 농산물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고, 그 오염은 300년 간 지속될 것이다. 이땅에서 건강한 자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사고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핵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모두가 이민을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호소한다. 한국의 탈핵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그리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되도록 빠른 시간 내로 이민을 가시라고...

# 청년 대학Y 우리들의 톡! Talk! 경험으로 나를 만들어가다

글 | 이지은 (중점운동국 대학청년위원회 간사)

**순천Y 권진민**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Y 권진민이에요. ^^ 저는 대학 들어오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Y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약 3년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봉사하고, 해피락이라는 도시락 봉사도 하고, 유해환경감시단도 했어요.

**울산Y 김량하**  
아~ 저도요~ ^^ 저는 울산Y 김량하라고요, 저도 봉사활동이 하고 싶어서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 찾다가 Y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후배 멘토링, 다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 해왔어요!

**인천Y 윤소라**  
1학년 때부터요? 대단하다~ ^^ 저는 인천Y 윤소라라고요, 전 1~2학년 때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학교만 다녔었어요. 그러다 3학년 때 우연히 아는 선생님께서 '청소년 관련된 봉사활동 딱 1년만 해봐라!' 라고 권해주셔서 Y 활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서 약속한 1년이 지났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 그리고 저는 지난달에 필리핀 지진 피해 구호봉사도 다녀왔어요~

**순천Y 권진민**  
우와~ 해외봉사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외봉사는 아니고, 작년에 히로시마 순례 프로그램에 한국Y 대표로 참가했었어요.

**울산Y 김량하**  
히로시마 순례 프로그램이 뭐예요?  
**순천Y 권진민**

일본Y에서 매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청년리더십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 일본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논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인천Y 윤소라**  
어떻게 한국 대표로 뽑혔어요?  
**순천Y 권진민**

제가 전공이 일본어인데다가 꾸준히 Y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선발된 것 같아요. 기회가 좋았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덕분에 Y에 대해, 일본에 대해, 평화에 대해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서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울산Y 김량하**  
저도 봉사활동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학교 졸업하면 공무원 하려고 했었거든요. 전공이 역사학인데, 제가 좋아서 선택하긴 하지만 취업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 이 쪽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청소년학을 복수전공하고, 이쪽으로 진로를 잡았어요~~

**인천Y 윤소라**  
그런데 봉사활동 계속 하다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매주 토요일 시간을 내다보니 힘들 때도 가끔 있거든요. 지금 졸업반이기도 하고요.

**울산Y 김량하**  
네, 맞아요! 주변 친구들은 전공 공부, 영어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도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게다가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인천Y 윤소라**  
그런데도 봉사활동 계속 하고 싶죠? ㅎㅎ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으니까 시간을 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도 졸업하고 취업해도 계속 Y 활동하고 싶어요~

**울산Y 김량하**  
저도요~ ^^ 그리고 특히 저는 봉사활동 하다보면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순천Y 권진민**  
근데 저는 다른 지역에 여행 가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는 없나요? 순천에서는 농촌 봉사를 하는데, 매번 가던 이 지역 말고 다른 곳에서 해볼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여행도 다녀보고 싶지만 학생이라서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인천Y 윤소라**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 순천Y랑 인천Y랑 연대해서 인천 대학Y 회원들이 순천에 가서 봉사활동 하고 여행도 하고, 순천 회원들은 인천에 오고..... 방학기간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울산Y 김량하**  
저희 동부지역에 오시면 탈핵 운동을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

\*위 내용은 실제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해요**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Y 운동은 또 하나의 활동의 장이다. 이 경험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찾고, 인생을 계획해나가고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Y 활동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소개해주면 어떨까?

-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Y, 부속시설 봉사활동
- 핵 없는 세상을 위한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Y-틴 지도교사, 씽크머니 강사, 다래교실 강사
-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연합회 인터넷방송국 아나운서
- 해외봉사 및 네트워크의 기회 한·일Y 청소년협의회(일본Y), 히로시마순례(Pilgrimage to Hiroshima/일본Y), 도스뜨(인도Y)
- 타단체 활동으로는 다양한 대외활동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니브엑스포 등이 있어요~

# 필리핀 타클로반 구호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건축 현장에 몰려온 마을 아이들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며

태풍 '하이옌(Haiyen)'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의 복구를 위해 기장해외선교부 주관으로 유성희 한국YWCA사무총장, 한미미 실행위원, 청주Y와 인천Y를 비롯한 대학Y 회원 11명이 지난 2월 15일부터 5일간 해외구호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대학Y 회원들의 소감문을 실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YWCA는 필리핀 하이옌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운동을 통해 1월 10일 필리핀YWCA에 모금액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글 | 윤소라 (인천Y 대학Y 회원)

지난 2월 16일 저녁 7시 우리는 필리핀 태풍지역, 타클로반의 구호 봉사활동을 위해 인천공항 K창구 앞에서 모였다. 밤 10시 비행기가 이륙함과 동시에 나는 천군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마닐라를 거쳐 타클로반 지역 베다니 병원에 도착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식구들과 먼저 와 계셨던 Y회원분들께서 우리를 반겨주셨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필리핀의 교통수단인 위험천만한 지프니 한 대에 얹히고 설켜 탑승해 바라용의 성전 건축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일은 정말이지 고되고 힘들었다. 우리는 현지의 전문 인부들의 도움을 받아 도랑이 흘렀던 자리의 흙을 삽질하고 채에 쳐서 자갈을 고르고, 다시 삽질로 포대에 담아 교회로 보내는 일을 하였다. 교회에 도착한 흙과 시멘트를 우물에서 길러온 물과 함께 섞고, 그것으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고된 일을 하다 보니 하염없이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충신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는 마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구경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생글생글 웃으며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체구도 작고 마른 아이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운동화에 모자에 수건에 장갑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장비도 없었다. 아이들이 위험해보여서 마음은 고마운데 괜찮다고 말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해주던 리아가 유난히 생각난다. 리아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서 수건으로 닦아주니 예뻐게 웃어보였다. 필리핀을 다녀 온 지 벌써 2주가 흘렀다. 한손엔 사랑을, 한손엔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이번 봉사를 통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타클로반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함께 지은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 마을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바라용 지역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기대한다. 유성희 사무총장님의 귀한 말씀과 한미미 선생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었고, 김해성 목사님과 한기장 지구촌 사랑나눔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열정과 추진력에 많은 것을 배웠다. 만남의 축복과 기회를 열어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과 YWCA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글 | 김용진 (청주Y 대학Y 회원)

나는 YWCA라는 단체를 만나 처음으로 해외봉사를 가게 되었다. 첫 해외봉사로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였다. 전국에 있는 YWCA회원들이 인천공항에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간단한 저녁을 먹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랜 비행에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보며 첫날부터 아침을 먹고 바로 지프니를 타고 바라용이라는 곳으로 가서 봉사를 시작하였다. 둘째 날은 우리에게 엄청난 미션이 내려졌다.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들과 교감을 나누고 배식까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 생각하다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고 한미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였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찬송과 울동을 하려니 솔직히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같이 했던 파트너 누나가 너무 열심히 하고 그들도 웃으며 따라하는걸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더 열심히 하였다. 정말 죄수와 우리와의 만남이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경험이었다. 셋째 날은 학교에 가서 우리가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을 하였다. 줄넘기, 제기차기, 복음팔찌, 종이접기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 활동을 하였다. 나는 그중에 줄넘기 파트에 있어 아이들과 줄을 가지고 림보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

직도 눈에 선하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같은 활동을 4번이나 하려니 힘이 들었지만 태풍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열심히 하였다. 활동을 끝내고 아이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더욱더 친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힘들게 지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전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우리가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과 서툰 외라이어로 말을 건네며 주민들을 초대하였다. 감사하게도 그 덕분인지 예배드리는 날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다. 처음에 준 목사님의 이야기와 감사의 말씀이 있었다. 김해성 목사님의 기도와 예배도 있었다. 그 다음엔 우리 YWCA식구들이 준비한 찬송과 울동 그리고 축복의 노래도 하였다.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며 울동을 같이 따라 해주니 기분이 좋았다. 그중 나와 친해진 아이인 리오넬과 아이반이 내 울동을 따라하는걸 볼 때 귀여웠다. 예배가 끝나고 나를 잘 따라주고 친해진 아이들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눈물이 났다. 마지막에 지프니를 타고 갈 때 우는 아이들을 보니 더욱더 슬펐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마지막 날, 숙소에 누워 돌이켜보니 정말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돌아와 시원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것이 소소한지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 좋은 경험을 정말로 잊지 않을 것이다. 🙏

# 유럽의 사회적 경제기관과 돌봄 사회적기업 탐방기

글 | 구정혜 (연합회 법인사무국장)

지난 해 9월말부터 올해 3월까지 아산나눔재단이 개설한 비영리단체 차세대 리더양성을 위한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 과정을 1기로 수강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NGO와 사회적기업, 복지기관의 중견 리더 30명이 함께 리더십, 사회혁신, 경영, 캡스톤프로젝트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는데, 해외 우수 비영리단체를 탐방하는 연구조사의 기회도 특별로 주어졌다. 우리 팀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목적투자기관을 조사하기 위해 런던과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였다. 연이어 연합회 정회경지도력기금을 통해 개인연수를 지원받아 스코틀랜드의 돌봄분야 사회적기업과 단체를 방문하게 되었다.

사회적경제 기반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의 사회혁신분야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과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사회적경제섹터의 재정 확보와 지원에 관한 프로세스를 알아보는 일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도 중인 사회목적투자 시장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과 수익 창출을 기대려줄 수 있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조성이 가장 필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다. 돌봄분야 기관 탐방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문제를 보건, 의료, 돌봄분야 사회적기업과 NGO의 활동으로 해소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자매인 스코틀랜드YWCA를 방문하

였다. 스코틀랜드YWCA의 디렉터인 Jackie Scutt 씨가 돌봄분야 사회적기업들을 미리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방문기관 섭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Y의 활동들을 알아보고 갔는데 뜻밖에도 독립된 활동 공간 없이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과도기의 스코틀랜드Y를 만나게 되었다. YWCA 운동은 알다시피 185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영국YWCA(YWCA of Great Britain)에서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던 '잉글랜드&웨일스YWCA'가 '플랫폼 51'로 단체명을 개명하여 더이상 기독교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놀랍고 안타까웠다. Jackie를 비롯한 스코틀랜드Y 이사와 멤버들 또한 30세 이하 젊은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 혁신적인 공간 'Melting Pot'

이곳에서 'Melting Pot'이라는 인상적인 사회혁신센터를 만날 수 있었다. 설립자인 Claire Carpenter 씨는 NGO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사회변화를 위하여 혁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열악한 사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공유할 공간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초기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판로, 모금에 이르기까지 자문 역할을



스코틀랜드YWCA 관계자들과 사회적기업가들과의 만남. 맨 오른쪽이 스코틀랜드Y 임시 디렉터인 Jackie Scutt.

하는 이 단체를 설립했다. 현재 150명의 회원이 이 공간을 활용하며 1년에 800여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코틀랜드Y도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공간이 초기의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있으며, 영리분야에서도 틈새시장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운영은 어려우며, 확장에도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일정한 비용을 내고 가입한 많은 회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모델로 실현하고자 각자, 또는 함께 업무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직원들로부터의 전문적인 기술의 지원뿐만 아니라 각 멤버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활기차 보였다. 며칠 후 런던에서 'Impact Hub Westminster'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Melting Pot과 같은 미션을 글로벌한 수익사업 모델로 확장한 형태였고 매우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IT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기업 'The ANNEX'

한 군데 더 인상적이었던 곳을 소개해 본다. 'The ANNEX'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25년 전 지역의 빈곤, 고용,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



사회혁신센터 'Melting Pot'의 외관

적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선단체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단체이다. 카페 운영과 미팅룸 대여, 건강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재정은 정부 프로젝트와 복권기금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인상깊었던 것은 지역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5년마다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포커스그룹을 재설정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다. 지역개발전문가로 훈련받은 10여명의 정규직원들이 전문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과 학비를 지원하며, 탄력근무제도, 테라피, 야외산책 등 쉼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공한다. 이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지가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 하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또 한 이유는 정부가 기업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고용의 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로 평가하며, 서비스계약이나 위탁시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하고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 길거리를 채운 Charity Shop

또 한 가지 관심있게 보았던 것은 대로에 늘어선 Charity



에딘버러 시내의 다양한 Charity Shop들.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 프로젝트팀과 함께.

Shop들이었다. 암환자를 위한 단체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선단체, 씬터들이 각자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재활용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곳에서의 수익이 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기증품뿐만 아니라 나름의 독특한 상품도 각자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한 달에 두어 차례 각 가정에 단체의 이름이 적힌 비닐봉투를 배포하면 주민들은 그 봉투에 쓰지않는 물품들을 담아 내놓는다. 단체에서는 이를 수거하여 정리하여 판매하는데, 모든 과정들은 학생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에게 일상의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부러웠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NGO인 'capability scotland'와 젊은장애인들에게 빵과 두부 제조법을 교육하고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취업도 알선하는 사회적기업인 'Engine Shed'를 방문하였다.

NGO와 사회적기업의 구분이 확실한 한국과 달리 영국은 그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특히 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민간재원을 참여시키고, 사회적기업이나 NGO가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사회목적투자기관을 통한 대출 등을 활

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도 여전히 정부의 보조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한국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여성들과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접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분야도 마찬가지다. 재정적인 여건은 열악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노력이 사회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와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돌봄과 살림의 가치를 사회로 확장하는 일에 기존의 관습과 활동양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창조되고, 자유스럽게 실험되는 현상이 우리 Y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한 활동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당면한 장벽들에 대한 제3의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Y가 우리 사회의 혁신적인 활동들, 특히 여성들의 활동과 경험을 소개하고 확장하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시간들이었다. 

# 지역, 핵 없는 세상을 실천하자!

글 | 최수산나 (지역운동국 부장)



## 동해Y,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행진에 참가

지난 3월 8일 삼척시 대학로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3주기를 맞아 '핵없는 세상을 위한 동해시 기독교 연대'가 주관하는 제 2회 탈핵주일 연합예배가 열렸다. 동해·삼척의 기독교인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창조적 관점에서 핵은 하나님 신앙에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삼척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가두 행진을 가졌다.

근접 지역인 동해YWCA는 Y-틴 청소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이 이 예배와 거리 캠페인에 참석하였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동해Y 회원 박한나(Y-틴 전국협의회장)학생은 '스마트폰을 통해 일본 친구들이 알려진 소식을 알게 되었다. 뛰어놀고 공부해야 할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고 2세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핵발전소 건립 반대에 주로 어른들이 앞장서야겠지만, 청소년들도 전기를 아끼는 생활의 실천과 함께 핵의 위험성을 알려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 삼척, 후쿠시마의 눈물이 될 것인가

올해 하반기 수립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1500MW급 원전 4기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에 각각 2기씩 건설 반영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다.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목표 비중을 59%로 잡고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 여기며 값싸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로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3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환상은 깨졌다. 일본 내에서는 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국제 사회를 넘어선 연대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곧바로 원전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후쿠시마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14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미 1차 에너지계획으로 현재 국내에는 총 23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어 있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후 계획된 것도 11기에 이른다.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현재 26%인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7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대로 가면 2035년에 국내 핵발전소는 총 41개가 된다.

지난해 12월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후보지인 삼척과 영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7차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결정을 유보했으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하반기 진행될 7차 전력수급계획에 삼척과 영덕에 각각 2기씩의 원전



동해Y-틴 청소년 학생들이 거리 캠페인 피켓을 들고있다.




핵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예배를 드리는 Y-틴 청소년 및 활동가들

을 추가 건설 계획을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삼척을 후보지로 결정한 데에는 산업단지 부지가 시도 소유로 토지수용이 쉬우며, 이후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는 계산이 숨겨져 있다. 삼척에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문제는 동해 삼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 연합회는 농업과 관광 부분에서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강력한 경쟁력 우위에 있는 동해안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이들의 가치는 한순간에 급락할 것이라며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삼척시는 2012년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핵발전소 유치활동을 벌였던 삼척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2013년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운동 전개로 민의를 확인하기도 했다. 삼척이 후쿠시마의 전철을 밟거나 또 다른 밀양이 되도록 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탈핵 도시 삼척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지역의 실천, 핵 없는 세상

에너지 수요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의 분석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 부족을 이유로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는 통계 분석들의 향연에 호도될 정도로 시민들은 우매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먹

고 마시고 놀고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의 변화와 개혁을 다짐하지 않은 채 핵에너지 폐기는 도래할 수 없다. 동해 YWCA는 Y틴·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탈핵교실'을 진행하고,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핵에너지가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환상이며 어리석은 우상임을 알리고, 지역 내 시민들과의 공감과 연대와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핵발전소의 문제를 내 가족의 먹거리 문제로만 한정하고, 후쿠시마를 일본 내의 문제로만 이해하며, 송전탑을 밀양 할매들의 문제로 선 긋고, 탈핵운동은 시민단체활동가들에게 족하다고 여긴다면,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지 않다. 핵발전소의 문제가 이미 우리 삶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자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의 주체, 변화를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핵 없는 세상은 저 멀리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 연합회 소식

### 3월 월례아침기도회



3월 월례아침기도회가 3월 3일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온전히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최대광 부목사(정동제일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YWCA의 연합과 탈핵운동을 비롯한 한국YWCA 6대과제 진행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 P.5~)

### 3.8 후쿠시마 3주년기념 탈핵마당



탈핵공동행동 주최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가 3월 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3년, 생(生)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먹거리존, 어린이놀이체험존, 북페어 등 부대행

사와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한국 YWCA에서는 인천Y, 부천Y, 수원Y, 파주Y, 고양Y가 함께 했으며, 청주Y 사회적기업 올리에서 친환경 먹거리인 버거와 김밥을 직접 만들어 함께 판매했다. 본 행사를 통해 핵 사고를 후쿠시마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공감하였으며 탈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 제1차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한국YWCA연합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인 3월 11일 "NO More 후쿠시마!"를 외치며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을 시작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과 함께 명동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희생자 추모 리본 달기, 노후 원전 폐쇄·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운동, 전 세계 핵발전소 상황판에 태양 스티커 붙이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매주 화요일 연합회 회관 앞에서 열리며 전국 52개 지역에 있는 회원Y가 정한 날에 전국동시 다발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P.10~)

### YWCA 영유아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숍

2월 6일과 7일 양일간 YWCA 영유아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숍이 YWCA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평화교육을 이

해하고,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한 5개 Y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은 본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제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 '도스뜨' 사업협약식



외환은행 나눔재단과 함께 하는 지구 시민자원활동 프로젝트 '도스뜨' 사업협약식이 2월 10일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2014년 도스뜨 사업 소개와 기금 전달식이 이루어졌다. 외환은행 나눔재단 관계자, Y연합회 회장단,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 싱크머니 1차 YWCA 금융강사교육(기초과정-오프라인)



2014년 싱크머니 제1차 금융강사교육(기초과정-오프라인)이 2월 12일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YWCA와 싱크머니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의 금융교육을 이해하고, 씩크머니 강사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 및 예비 YWCA 금융교육강사 96명, 연합회 실무자 3명 총 99명이 참석하였다. 2014년부터 씩크머니 YWCA 금융강사교육(기초과정)은 일일 오프라인 과정 및 6주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  
**제4차 정기총회**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는 2월 20일 정신여중 김마리아관 제3집회실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13년 사업보고, 감사보고 및 회계보고와 2014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이 이루어졌다.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강교자 명예연합위원이 재선출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YWCA 대표 5명을 포함해 총 32명이 참석했다.

**김필레션생기념사업회**  
**제4차 정기총회**

.....  
**복지사업단 정기이사회**  
 YWCA복지사업단 2014년도 정기이사회가 2월 2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2013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사업보고가 이루어졌다. 복지사업단 이사·감사·실무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복지사업단 정기이사회**

.....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이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연합회 회의실에서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인수인계식**

.....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인수인계식이 3월 6일 연합회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부터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을 인수받았다. 앞으로 2년간 사회적기업의 자립 및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사무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수인계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와 Y연합회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2014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 협의회**

.....  
 2014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 협의회가 2014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버들캠프장에서 진행됐다. '탈핵운동을 통한 지역운동성 강화'라는 주제 아래 유성희 사무총장을 비롯해

회원Y 사무총장 및 부속시설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워크숍, 영성훈련, 부속시설장 협의회 및 안전토의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 굿모닝미인카드 기금 전달**



.....  
 농협-YWCA가 함께하는 굿모닝미인카드 2013년도분 기금 전달식이 3월 18일 연합회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농협명동지점 임종명 지점장은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YWCA 지도자와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금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굿모닝미인카드는 2006년부터 농협과 YWCA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카드사용금액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어 쌀소비촉진과 식문화개선, 여성지도력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동 정**

- 이종임 실행위원 (Y아카데미 위원장) '기적의 건강식 카레' 출간
- 문복희 前 실행위원 시집 '눈이 내린다' 출간
- 최수신나 (지역운동국 부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제16차 정기대의원회에서 통일부 장관 표창

# 회원 YWCA 소식

## I 북부

**서울YWCA** 박서영 간사  
**소비자 이슈 강좌 '금융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



.....  
 서울Y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하여 2월 12일 '금융 소비자 피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의 강의로 소비자 이슈 강좌를 열었다.

**시니어연극 '실버라이징' 수료공연**

.....  
 서울Y는 2월 8일 시니어연극 교육과정 수료공연으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을 각색하여 서울Y 소극장 마루홀 무대에 올렸다. 32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연극도 감상하고 앞으로의 활동들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인천YWCA** 이한나 간사

**장 담그기**

.....  
 인천Y는 2월 18일과 19일에 YWCA회관 옥상에서 좋은 햇살 가운데 장 담그기를 진행했다. 위원들과 함께 직접 메주를 씻는 등 생명운동의 실천을 통해 생명 사랑을 담은 먹을거리를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기도운동 전개**

.....  
 인천Y는 올해부터 매일 정오 12시 40분에 Y기도실에서 연속기도회를 시작했다. 이사, 위원, 회원들과 함께 YWCA 6대 중점운동을 통해 인천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강릉YWCA** 박지윤 간사

**상반기 이사위원 워크숍**

.....  
 3월 13일 강릉Y는 40여명의 이사위원들이 함께한 강릉Y이사위원 워크숍을 열고 「한반도는 아프다」의 저자인 한완상 전 적십자 총재를 초청해 '평화통일'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번 워크숍은 이사위원과 실무자 및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강의를 통해 적대적 상호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여성 희망찾기 1차 교육생 모집**

.....  
 강릉Y는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여성 희망찾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여 현대인의 키워드 의사소통, 내 인생의 새로운 설계와 실천 다짐, 취업자를 위한 셀프스트레스 코칭, 청소의 노하우, 정리수납, 가치 있는 나눔, 취업성공 사례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동해YWCA** 김정은 간사

**2014년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설명회 개최**



.....  
 동해Y는 2월 19일 동해시 관내 기업체 대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여성인턴제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YWCA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우미강 센터장과 20개 업체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탈핵주일 연합예배**

동해 Y-틴은 3월 8일 삼척시 대학로 광장에서 열린 핵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2014 탈핵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본 예배에서는 핵 없는 세상 및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예배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속초YWCA 김희숙 간사**

**산모·신생아 신규교육(기본과정) 실시**

속초Y는 2014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을 위해 3월 24일부터 2주간 40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모 및 신생아의 정서적 지지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과정 이후 심화교육까지 수료한 교육생들은 돌봄과 살림에 채용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원주YWCA 신미선 간사**

**원주Y 어린이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발대식**

원주Y는 3월 8일 9시30분 어린이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발대식을 원주YWCA강당에서 가졌다. 3월 1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 80명은 원주Y 박경숙 회장과 권순형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사, 학부모 등 총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앞으로 원주Y의 음악을 통한 전도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원주 홀리클럽 조찬 기도회**

원주 지역 초교파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로 구성된 원주홀리클럽 3월 조찬기도회가 원주Y 강당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박경숙 원주Y회장의 사회로 권순형 사무총장의 원주Y 소개가 있었으며 이사들의 특송이 있었다. 원주Y의 발전을 위한 기도회와 함께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특별한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춘천YWCA 이복희 본부장**

**2014년 신입이사 지도자 훈련**

춘천Y는 2월 25일 신입이사 7명을 대상으로 1단계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춘천Y의 중점사업 소개와 목적 및 정체성, 역사와 조직구조 및 위원회 규정 등을 교육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춘천학사 입사식**

춘천Y는 3월 4일 강원인재양성의 요람인 춘천학사 입사식을 가졌다. 입사식은 박용한 목사의 예배, 입학생의 선서식, 축사, 환영사, 사생 상호간의 인사의 시간으로 진행했다. 입사식 이후 오



찬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춘천학사에 입사한 37명의 사생들은 함께 생활하며 꿈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꿈찾기 비전스쿨 개강**

고양Y는 3월 8일에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 꿈찾기 비전스쿨을 개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이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 주도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한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동부천C 건설반대 서명운동 전개**



부천Y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부천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동부천C 건설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동부천IC 건설은 산을 허물고 주민들의 식수 공급원인 까치울 정수장 50m 거리에 설치될 예정으로, 부천시 및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

다. 식수오염, 소음, 분진은 물론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동부천C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

**2014년 부천YWCA 신입이사교육**

3월 7일 부천Y는 2014년도 신입이사 교육을 진행했다. 김진희, 박성애, 이현순 신입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순 부회장이 'Y의 목적과 정체성', 송록희 부천Y 사무총장이 'YWCA 구조 및 중점사업'을, 그리고 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이 'YWCA 이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강의했다.

**성남YWCA 황정아 간사**

**산모돌보미 신규교육**



3월 10일에서 13일까지 산모돌보미 신규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11명의 교육생들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이해·영양관리·안전관리·마사지 등 산모돌보미서비스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산모돌보미로서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배웠다.

**2014년 이사·위원·실무자 교육**

3월 29일 성남YWCA 이사, 위원, 실무자 교육이 은학의집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YWCA영성교재인 새벽종소리로 이천진목사(공정교회)가 강의하며, 이를 통해 YWCA정체성, 정의·평화·생명운동, Y운동가의 사명에 대해 배우며 2014년 Y운동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아이♥맘 카페 개소식**

수원Y는 2월 20일 전문적인 육아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맘 카페'를 개소했다. 개소식은 홍승화 수원Y회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외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맘 카페는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한 놀이교육 및 육아 정보를 제



공할 예정이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놀멍! 쉬멍! 걸으멍!' 이사·직원 워크숍**

안산Y는 이사 및 실무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일상을 벗어나 제주도 올레길 체험, 우도 관광, 꽃차할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자원지도자와 실무지도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6차 안산여성대회**



안산Y는 안산여성노동자회와 함께 3월 8일 안산 수암산에서 회원 및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6주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권 불어라 봄바람~'이라는 주제로 제16차 안산여성대회 캠페인을 개최했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2014년 Y-틴 인준식**

안양Y는 3월8일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Y-틴 인준장과 Y-틴 회장으로 황희선(성문고2), 부회장 이지희(평촌고1), 회계 김서현(비산중2), 서기 이서영(신기중2)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원선서 및 Y-틴 목적문을 함께 낭독하며 한해의 시작을 준비했다. 문

화교육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과 박동순 사무총장, 안주영 위원, 대학활동지도자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28주년 창립기념예배



안양Y는 3월 11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김지영 중경회장의 '은혜로다'의 말씀으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사,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28주년 생일을 축하했다. 안양Y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안양Y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경기북부 아이돌보미 담당자 간담회



의정부Y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아이돌보미 양성 기관으로 재지정되어, 3월 25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아이돌보미 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경기북부청사 가족여성담당관, 교육기관 담당자 및 경기북부 10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담당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평택YWCA 정혜근 간사

돌봄과 살림 취업교육

평택Y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준고령의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로 아기돌보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YWCA의 정체성과 돌봄 노동에 대한 이해 및 자존감 형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수료 후 돌봄여성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예정이다.

하남YWCA 윤영미 센터장

글로벌다문화센터 한국어교실 사탕부케수업

2월 27일 하남Y부설 글로벌다문화센터 한국어교실에서 신학기 입학시즌을 맞아 사탕부케 수업을 진행했다. 자녀의 입학 축하하고 자녀들이 친구들과 사탕을 나눠먹으며 교우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등에서 온 젊은 엄마들이 참석했다.

중부

대전YWCA 김지찬 간사

2014년 시민학교 입학식



대전Y는 3월 6일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70여명의 노인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시민학교 입학식을 진행했다. 1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할 선생님들의 소개와 함께 공부할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새봄 새출발을 시작했다.

제천YWCA 이경희 부장

쌀 나누기

제천 Y는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성광교회로부터 쌀 500kg을 후원받아 받은 제천의 시민들을 위한 떡 나눔 행사를, 받은 독거 어르신 및 미자립 교회에 지원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이사위원 연구모임 진행

청주Y는 2월 27일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최만자 위원(한국YWCA연합회 Y아카데미)의 '생명평화와 기독교 여성의 역할', 김양희 대표(젠더앤리더십)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세상 다시 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 위원, 실무자 등 총 75명이 참석해 생명평화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2014년 청주Y의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세계기도일 예배

청주Y는 3월 7일 청주서문교회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세계기도일 예배를 진행했다. 서문교회 송희숙 회장의 사회로 청주·청원지역 280여명 10개 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서문교회 박대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초교파적인 힘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충주YWCA 김세희 간사

2014 세계기도일예배



지난 3월 7일 세계기도일 예배에서는 이집트 여성들이 작성한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게 하라!"라는 기도문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 세계 여성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지구촌 릴레이 기도회로 진행됐다.

조영나모(좋은 영화 함께 보고 나누는 모임)

충주Y 상담소는 2월 20일 '조영나모'에서 1회 상영작으로 위안부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을 감상했다.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해 총 25명이 영화를 관람하고 평가회를 가졌다.

논산YWCA 김화선 팀장

찾아가는 EM 특강

3월 4일 논산Y의 부속시설 여성의 쉼터 '아름다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EM교육을 진행했다. EM교육과 활성액 만들기, 탈취제 만들기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EM활성액을 활용한 청소법과 세탁법이 만족도가 높았다. 논산Y는 지역사회 내 환경운동과 EM 확산운동을 위해 논산지역 내 10명 이상의 단체 또는 모임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EM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YWCA 홍진영 팀장

2014년 여성노인대학 개강



세종Y는 3월 5일 여성노인대학 개강식을 열었다. 개강식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50명이 참석해 즐거운 노래교실과 여가 활동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여성노인대학의 시작을 알렸다. 세종Y는 지역 내에서 최초로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장 담그기 시연회

장 담그기 시연회가 2월 28일 천안Y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먹거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현하고, 음식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며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 서부

### 광주YWCA

김해정 간사

새이사·공천위원·상임위원 오리엔테이션



광주Y는 3월 6일 새롭게 선출된 새이사, 공천위원과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YWCA 목적과 정체성, Y 지도자들의 역할과 사명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Y 지도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명과 긍지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 광주YWCA 봄장날 개최

광주Y는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Y회관 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풍성한 봄장날을 개최하였다. Y가 직접 제조한 고추장, 메주가루, 김치, 장아찌를 비롯하여 농수산물, 의류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제품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 남원YWCA

박경은 간사

#### 2014년 상반기 살림·산모돌보미 교육

남원Y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상반기 살림·산모돌보미교육을 진행하였다. 살림·산모돌보미의 역할을 배우고, 베이비마사지와 다림질 실습을 통해 실제에도 적용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 남원YWCA Y-틴 인준식

남원Y는 3월 22일 Y-틴 인준식을 진행하였다. 서남교회 이우혁 부목사의 말씀과 함께 Y-틴의 역할을 안내했다. 2014년 Y-틴 중점운동인 탈핵운동과 남원Y의 중점운동인 여성폭력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Y-틴 인준식에는 총 30여명의 Y-틴이 참여하였다.

### 전주YWCA

김은진 부장

#### 로컬푸드 모니터링 실시

전주Y 프로그램사회문제부에서는 2월 13일 전주YWCA 민들레홀에서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모악지점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주Y와 로컬푸드 소개, 모니터링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 청소년 비행 탈선 방지를 위한 감시순찰활동 전개



전주Y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졸업시즌인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했다. 감시단은 청소년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마련하는 한편, 전주 지역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감시·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 건전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 익산YWCA

장윤미 간사

#### 익산시 5개 중학교 Y-틴 연합회

익산시 내 남성중, 남성여중, 이리중, 이일여중, 원광여중 총 5개 중



학교에 Y-틴 클럽이 조성되어 3월 6일 익산YWCA회관 회의실에서 각 학교의 복지교사와 실무자가 참석한 Y-틴 구성과 2014년 일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본 회의에서는 탈핵 강의와 금융교실,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운동, 환경 살리기 운동, 요양원 봉사 활동 등의 계획을 세웠다. 3월 28일 인준식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 목포YWCA

곽수현 부장

#### 2014 신입이사 연수

목포Y는 2월 11일 회우실에서 2014년 신입이사연수를 실시했다. 최영례, 홍현숙 신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YWCA목적문 이해와 정체성, YWCA역사 및 중점운동 이해, 현장연구의 다양한 강의를 김애자 회장, 이해경 부회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 『행복합창경연대회』참가

목포YWCA 합창단은 2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주최한 『행복합창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전남 지역 12개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목포YWCA합창단은 '산유화, 아름다운세상' 2곡을 선사하였다. 참가한 합창단에 지원되는 참가비는 북한분유보내기 성금으로 전액 후원했다.

### 순천YWCA

신현아 간사

#### 순천YWCA 창립 68주년 기념예배



창립 68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0일 순천YWCA회관에서 이사 및 직원 50여명이 모여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번 기념예배에서 김순영 증경회장이 YWCA를 더 많이 알고자 직접 노래를 작곡, 작사하였던 열정을 나눴고, 최병남 증경회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발걸음을 남겨라”라는 말씀, 최문옥 전 사무총장은 실무자로서의 회고를 나눴다.

#### 순천YWCA와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는 'Beautiful Day'

순천Y는 2월 24일 순천YWCA와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하는 'Beautiful Day'를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날 행사는 Y회원들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며, 기증물품은 1,674점이며 총 판매수익금은 1,784,400원이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 남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 제주YWCA

장진우 간사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간담회 및 캠페인 진행



제주Y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3월 7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어 제주민속오일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퍼포먼스를와 더불어 돌봄 노동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서귀포YWCA어린이집 졸업식

2월 21일 서귀포YWCA어린이집 제16회 졸업식이 서귀포YWCA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졸업생들과의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보냈다.

서귀포YWCA소년소녀합창단 음악캠프



서귀포YWCA소년소녀합창단 음악캠프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1박 2일동안 안덕서광교회에서 진행됐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합창의 기본발성과 3월 공연에서 선보일 공연 연습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4년 신입 단원들과 기존의 단원들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더욱 친밀해졌으며 지역문화체험활동으로 코끼리테마쇼를 관람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하기를 기대한다.

동부

대구YWCA

김세형 차장

영성훈련

대구Y는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성주 하늘목장수련원에서 이사·위원·실무자 40명이 함께 모여 영성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따뜻한 소통, 행복한 동역' 이란 주제로 대구월배교회 이상관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선배에게 듣는 대구YWCA 90년 그리고 100년'이라는 주제로 김초자 증경회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90주년을 맞은 대구Y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길 기대한다.

대구 Y-틴 전체모임



대구 Y-틴은 2월 26일 대구 Y-틴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짐하는 전체모임을 가졌다. 대구 Y-틴 회원들이 각자 목표에 대한 힘찬 포부를 들었다. 또한 올해 동부지역 Y-틴의 중점운동인 탈핵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바람개비를 만들었다. 앞으로 대구 Y-틴이 대구Y의 희망으로 자리나길 기대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기동단속반 운영

대구Y는 3월부터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했다. 2005년부터 활동해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건전한 대중매체와 행위, 장소 및 물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Y의 기동단속반 운영이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길 기대해본다.

부산YWCA

하경량 간사

후쿠시마 핵사고 3주기 3.8 핵없는 사회를 위한 탈핵시민 한마당



3월 8일 부산역광장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3주기 3.8 핵없는 사회를 위한 탈핵시민한마당'이 열렸다. 부산Y는 탈핵피켓 전시, 탈핵무한도전퀴즈 진행으로 핵의 위험성을 어린이·시민에게 알리고 탈핵희망풍선에 희망메시지를 기록했다. 탈핵시민 발언, 밀양·청도 어르신 발언, 탈핵선언문 낭독, 길쌈놀이, 퍼레이드 행진 등으로 핵 없는 세상을 희망하는 시간이었다.

회원교육·탈핵의 환경윤리

3월27일 회원, 신입이사, 신입위원을 대상으로 회원교육이 진행되었다. '탈핵의 환경윤리'라는 주제로 한명희 철학박사(현 성균관대 초빙교수, 전 녹색대 대표)를 모시고 진행된 교육을 통해 탈핵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울산YWCA

김선양 팀장

Y-틴과 함께한 탈핵 캠페인



3월 8일 울산Y와 Y틴이 함께 탈핵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탈핵을 알리고 탈핵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다짐서를 받는 캠페인을 했다. 울산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거리행진을 했으며, 특히 울산Y는 탈핵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포항YWCA

황혜민 간사

민들레 한글학교 수료식 및 입학식



포항Y는 3월 11일 제20회 포항YWCA 민들레학교 수료식 및 입학식을 진행했다. 지난 19년간 문맹자 퇴치를 목적으로 포항YWCA 민들레학교는 비문해자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 2회 초급반, 중급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자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졸업생들이 소감문을 낭독했다.

간병인 양성과정교육

포항Y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이상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간병인 양성과정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이해와 직장적응도를 높여 취업을 활성화시키며 재사회화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거제YWCA

김의향 팀장

노인일자리사업발대식



2월 10일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다목적홀에서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 1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취업 희망자들은 앞으로 약 9개월동안 일하게 된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발대식에는 박진희 사무총장과 담당실무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19명이 참석했다.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오리엔테이션 개최

2월 28일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4년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방문교육 사업안내 및 방문교육 대상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김해YWCA

배정숙 실장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김해Y는 3월 13일 김해분성중학교 앞에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경남 김해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지역 내 청소년 유관 기관 등이 모여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2~3회 가량 실시되고 있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경상남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

3월 20일과 21일에 LIG 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경상남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지자체 담당자와 제공기관 관계자 150명이 참석하여 운영 관리교육과 우수사례 발표, 201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기대한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기금마련을 위한 의류바자회 개최**

사천YWCA에서는 3월 3일부터 8일까지 2층 강당에서 회원 및 사천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금마련을 위한 의류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수익금은 취약계층 아동과 피해여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쉽게 배우는 한국어교실 개강식**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월 6일 다문화여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쉽게 배우는 한국어교실 개강식을 실시했다. 2014년 한국어교실 안내, 직원소개 및 센터 사업 소개와 지도 교사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다문화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산야초 · 발효장아찌 건강 먹거리' 교육**

양산Y는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봄맞이 '산야초 · 발효장아찌 건강 먹거리' 교육 강좌를 3월 12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4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양산YWCA강당에서 진행한다. 자연이 주는 먹거리를 활용한,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문화 확산에 의미를 둔 이번 강좌는 산야초 채취 방법과 시기, 산야초 성질에 따른 산야초 차와 장아찌 활용방법, 산야초 · 발효장아찌 담는 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진주YWCA**

조현진 간사

**진주 YWCA 노인대학 1학기 개강식**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이 풍성한 3월 5일 진주YWCA 3층 대강당에서 노인대학 어머니들의 개강식이 있었다. 시니어 요가와 노래 교실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며 신입회원들이 많아진 가운데 출발을 시작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진주Y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시민공청회를 비롯하여 3월 13일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진주시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계획 중이다.

**창원YWCA**

박소라 간사

**창원Y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참여**

창원Y 실무자들은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3월 10일부터 1박 2일간 교육을 이수했다. 성인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창원Y는 한국YWCA정책에 발맞춰 올 한 해 성인지 정책 참여운동을 열심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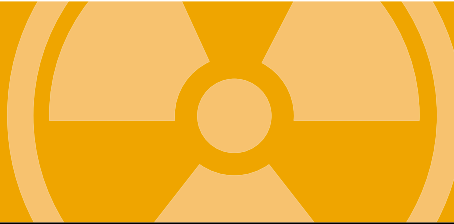
**통영YWCA**

이정숙 간사

**통영시여성회관 개강식 열려**



2014년부터 통영Y가 통영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여성회관의 1학기 프로그램 개강식이 지난 3월 3일 진행됐. 제1기 프로그램은 자격증반으로 캘라그래피, 흙패션, 리본공예 강좌가, 취미반으로 네일아트, 우크렐레, 난타, 킥복싱다이어트, 요가반이 진행된다. 이날 개강식에는 김동진 통영시장, 김윤근 · 원경숙 경상남도의원, 이지연 통영시의원, 교육강사 및 교육생 등 총 10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 핵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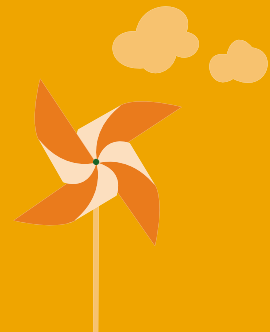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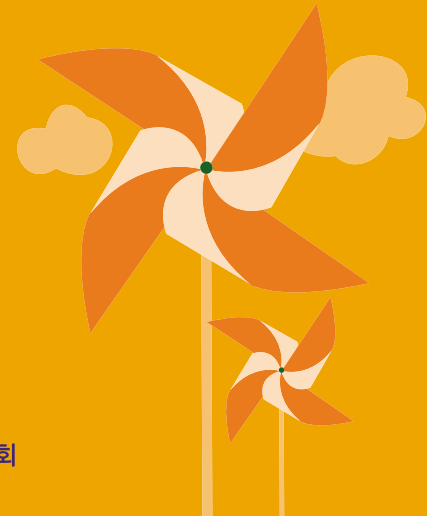
**한국YWCA는 여성들의 생명살림의 힘으로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매주 화(火)요일 펼쳐지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위험한 불'(영구적 위험으로서의 핵폐기물)을 끄고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불'(자연에너지)을 밝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YWCA 핵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일상 속에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부터 생명살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없는 세상은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

- 일시\_ 매주 화요일 12시~13시
- 장소\_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
- 주관\_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YWCA


(사) 한국YWCA연합회